

이른 폭염에 '식중독 비상'...유통가, 위생 강화 나선다

9월까지 신선·즉석조리 식품 진열시간 단축에 일부 품목 판매 중단도 대형마트, 식품군 점검 빈도 높이고 취사 도구 수시교체·냉동고 등 소독

여름이 다가오는 게 두려울 정도로 때 이른 무더위에 지역 유통업체가 음식물 위생관리에 돌입했다.

지역 유통업체는 즉석섭취식품 판매기한을 단축하는가 하면, 상하기 쉬운 품목 판매를 한시적으로 중단하고 신선식품 위생 점검 빈도를 높이는 등 갖은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12일 유통업체에 따르면 지역 소재 백화점과 대형마트들은 올해 이맘 무더위와 평년보다 기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9월까지 식품 코

너에 대한 철저한 관리에 나선다.

먼저 광주신세계는 오는 8월 말까지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식중독 우려가 높은 일부 신선식품 및 즉석 조리 식품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다.

판매 중단 품목은 육회와 육회비빔밥, 간장게장, 양념게장, 새우장, 전복장, 생갓잎김치, 콩국물, 팔떡 등 10개 품목이 포함됐다.

또 최근 수요가 높은 조각 수박은 위생관리가 용이한 보관용기에 담아 판매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치즈와 우유, 훈제연어, 식육 등 냉장

판매 식품들의 온도 관리를 평상시보다 자주 실시할 계획이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오는 9월까지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높은 즉석섭취식품들의 매대 진열 시간을 대폭 단축한다.

이에 따라 기존 '당일 판매' 원칙에 따라 판매되던 냉장 진열 상품은 7시간, 실온 진열 상품은 4시간 이내에 판매하기로 했다.

더불어 회와 초밥, 김밥, 콩국물 등 여름철 쉽게 상하는 식품군에 대해 본사 주관하에 불시로 수거 검사를 할 뿐만 아니라 영업 시간이 아닐 때에도 위생 상태 모니터링을 추가로 실시하기로 했다.

위생 점검에는 적외선 온도계와 위생오염도(ATP) 측정기 등 전문 장비들을 이용해, 보다 과학적인 관리를 통해 안전한 식품을 제공한다는 방

침을 세웠다.

이마트 광주점은 기존 상시 근무를 통해 먹거리 위생 및 판매 상태를 점검해 온 '준법관리자'의 먹거리 점검 빈도를 높이기로 했다.

김밥류는 점포에 입고되는 즉시 냉장 보관하며, 수박과 멜론 등 조각과일 역시 상시 냉장 진열 판매하기로 했다.

또 식품 코너에서는 음식 조리용 칼과 도마, 위생장갑 등의 취사 도구를 수시로 교체할 예정이다.

롯데마트는 철저한 위생관리를 위해 여름철 자주 사용되는 제빙기와 아이스크림 냉동고, 냉방설비 등을 세척 및 소독하고 있다.

이어 매장 내 '위생관리사'를 상시 배치하고, 롯데안전센터와 함께 식품군을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롯데마트는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높은 수산물도 진열 후 7시간 내에 판매하고, 각종 즉석조리 식품 및 신선식품의 판매 가능 시간을 단축한다.

초밥과 김밥 등 즉석조리 식품은 판매 가능 시간을 제조 후 9시간에서 7시간으로 줄였고, 수박 등 과일류의 경우 매대 진열 후 6시간 이내에 판매하기로 했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새벽 시간 등 고객께 피해가 가지 않는 시간 대에 불시 점검을 통해 점포 내 진열된 상품과 냉방시설 등의 위생상태를 꼼꼼히 살피겠다"며 "점검 과정에서 위생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신속하게 판매금지 여부를 판단하고,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모자로 멋과 자외선 차단 한번에 12일 롯데백화점 광주점 직원이 다양한 여름 모자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광주점은 오는 7월 말까지 본점 5층에서 모자 전문브랜드 '캡틴' 팝업스토어 매장을 운영한다. '밀짚모자'와 '버거지 모자', '선캡' 등 다양한 스타일의 모자들을 판매하며, 1만원 균일가 제품 등 다양한 상품 행사도 함께 진행한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G마켓·옥션, 여름가전 '더 세일' 진행

16일까지 최대 26% 할인

신세계그룹 계열 전자상거래 플랫폼 G마켓과 옥션은 오는 16일까지 에어컨, 제습기 등의 여름 가전을 대상으로 '더 세일' 프로모션을 한다고 12일 밝혔다.

삼성, LG전자, 위닉스 등 50여개 브랜드 제품을 엄선해 최대 26% 할인가에 선보인다. 여기에 브랜드별 중복 할인쿠폰을 지급하고 카드사 7% 즉시 할인, 7% 캐시백 등의 혜택을 준다.

매일 3시간 특가에 한정 판매하는 '타임딜' 행사도 있다.

삼성·LG 가전 주문 시 고객이 지정하는 날짜에 설치해주는 예약 설치 서비스를 제공한다.

행사 기간 다양한 임대(렌탈) 상품도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볼 수 있다.

G마켓 자체 방송 채널인 'G라이브'에서는 관련 라이브 방송을 준비했다.

자세한 내용은 G마켓과 옥션 메인 화면의 행사 이미지로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다.

G마켓 관계자는 "올여름 역대급 폭염과 폭우가 예고돼 각종 여름 가전을 찾는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며 "여름 가전을 준비하는 최고의 쇼핑 기회 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

"여름 물가 잡는다"...이마트, 여름상품 할인

30일까지 백숙용 생닭 30% 할인 먹거리·생활용품도 반값 행사

이마트는 오는 14일부터 30일까지 백숙용 생닭과 광어회, 초당 옥수수 등을 할인한다고 12일 밝혔다.

백숙용 무항생제·동물복지 생닭 전 품목은 신세계포인트를 적립해 구매하면 30% 할인한다. 이른 더위로 닭백숙 수요가 높아질 것을 예상해 4~5월 키워 살아 오른 닭을 10만수 준비했다.

광어회(360g 내외)와 광어 물회도 신세계포인트 적립 때 각각 30% 할인한다.

여름철 별미인 초당옥수수는 8개에 1만원대 특가로 선보인다. 이는 이전 판매가보다 36% 할인된 가격이다.

보성과 광양 등의 농가와 사전 계약재배를 통해 100만개 물량을 확보했다.

재미와 실속을 챙길 수 있는 '골라 담기' 행사도 준비했다.

샐러드 12종 중에서 3팩을 구매하면 7천원대에, 수산물 6종 중 3팩을 구매하면 9천원대에 각각

판매한다.

이 밖에 에어컨과 제습기 등 여름철 가전제품은 행사 카드로 결제하면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80만원 상당의 신세계상품권을 증정한다.

오는 14~16일에는 주말 행사로 산딸기(350g)를 8천원대에 판매하고, 미국산 외구·호주산 갈빗살을 30% 할인한다.

CJ 군만두·물만두와 포도씨유, 포스트 시리얼, 하겐다즈 파인트 등 먹거리와 생활용품은 2개 이상 구매하면 최대 50% 할인해주거나 원플러스원(1+1) 행사로 절반 가격에 선보인다.

여름 쇼핑 혜택으로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7만원 이상 구매하면 스탬프를 1개 지급하고, 스탬프 6개를 모으면 선착순으로 1만명에게 사은품을 주는 이벤트도 마련했다. 사은품은 14만 원 상당의 캐리어와 여행용 파우치다.

최진일 이마트 마케팅 담당은 "본격적인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보양식 등 여름 상품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 할인 행사를 마련했다"며 "재미와 가성비를 모두 잡는 행사를 지속해서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음식 배달 3사 처음 소집한 농식품부 "상생방안 모색을"

외식업계 "새 요금제에 수수료 부담...무료배달 전체 적용해야"

음식 배달 앱 수수료 부담이 크다는 외식업계·소상공인들의 하소연이 나오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처음으로 음식 배달 플랫폼 3사를 소집해 상생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농식품부와 음식배달 업계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지난달 28일 서울 양재동에서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관계자와 만나 배달 플랫폼과 입점 소상공인 간 상생 방안을 논의했다.

농식품부가 음식배달 업계와 만난 것은 처음으로 최근 외식업주들이 배달 플랫폼 신규 요금제 상품 때문에 수수료 부담이 커진다고 문제 제기를 한

데 따른 것이다.

농식품부는 배달 3사에 외식업주들의 어려움을 전달하고 상생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농식품부가 음식배달 플랫폼을 처음 만난 것은 지난달 17일 열린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과 외식업계·소상공인 간담회의 후속 조치다.

송 장관은 배달 앱 수수료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는 건의에 "배달 앱 문제로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답했다.

배민과 쿠팡이츠는 각각 '배민1플러스'와 '스마트 요금제'를 도입한 바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외식 업계는 배달 수수료가 너무 많다고 하고 배달 플랫폼은 그렇지 않다고 해 인식 차이가 크다"면서 "상생 방안을 고민해보자는 얘기에 배달 플랫폼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업계는 배달 플랫폼이 무료 배달을 하려면 외식업주가 가입하는 전체 요금상품에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농식품부는 업계 의견을 수렴해 배달 플랫폼과 소통하면서 상생안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다.

외식 물가 잡기에 애를 쓰고 있는 농식품부가 배달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배달 3사를 처음으로 만났지만 배달 업체들은 말을 아꼈다.

/연합뉴스

조선의 시인
아홉번째
시집

제9 시집
조선의 시집

담양, 인향만리
죽향만리

조선의 시집

담양에서 길어 올린 아름다운 시편들의 향연

담양, 인향만리 죽향만리

“ 이 시집은 담양을 사랑하는 조선의 시인이 몸소 시가 된 담양의 현사가 아닐까. ”

이성혁(문학평론가)

시인의 말

과거가 / 미래를 향해 / 현재에 살아 있는 곳
담양은 / 말로만 듣는 것보다 / 직접 와서 보면 안다
왜 다시 오고 싶은지

조선의

농민신문 신춘문예, 기독 신춘문예, 미션21 신춘문예 당선
송순문학상, 신석정문학상, 신성문학 대상 등 수상
시집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밀사』,
『꽃으로 오는 소리』,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입의 문장』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장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장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장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

지은이 | 조선의
펴낸 곳 | 도서출판 상상인 ☎ 02-747-1367